

光日春秋

김탁환



대한민국에서도 첫 우주인이 나왔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이소연 씨가 우주비행을 마치고 귀국한 것이다. 우주에서 보낸 나날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 달에 발을 디딘 우주인과의 인터뷰를 모은 앤드루 스미스의 '문더스트(MoonDust)'는 좋은 참고자료다.

지구인 중에서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은 열둘인데, 그 중 세 명이 죽고 아홉 명만 남았다. 우주복을 입고 달에 선 표지 그림부터 눈길을 끈다. 지구로 귀환한 후 지금은 우주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 앨런 빈의 솜씨다.

1969년 아폴로 12호를 타고 달에 다녀온 그는 우주비행의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300년 동안 망원경으로 우주를 살피고 탐사선을 떠나면 우주로 보내고 있는데도, 달 위를 걸으며 바라보던 지구만큼 아름다운 천체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저는 우주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단 것입니다."

미래에는 더 많은 이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주비행을 즐기려는 낙관적인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전제가 깔렸다.

역사소설가인 내가 이미 죽은 자들의 흔적을 찾아 책을 뒤지고 답사를 다니는 동안,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훗날 인

모두 함께 미래를 꿈꾸자

류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가령 나노로봇을 연구하는 과학자는 이 매우 작은 로봇을 인체에 넣어 병균을 모조리 퇴치하는 날을 꿈꾸고, '입는 컴퓨터(Wearable Computer)'를 연구하는 과학자는 말이나 행동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고감도 센서가 인간 개인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유비쿼터스 세상을 그린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막대한 산업폐기물을 지구가 다치지 않도록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찾는 과학자도 있고 예술 활동을 더 많은 이들이 더 저렴한 가격

으로 즐길 수 있도록 뇌를 중심으로 인지 영역을 탐구하는 과학자도 있다. 과학자들이 치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펼쳐 보이는 미래는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있다.

미래를 그린 소설가들의 작품은 하나같이 어렵고 칙칙하다. 조지 오웰의 '1984'나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까지 갈 필요도 없다. 올해 우리나라 대표 SF 작가들의 단편집인 '얼터너티브 드림'만 꺼내 펼쳐도 미래는 디스토피아로 가득 차 있다. 이 작품집에서 인간은 능동적인 활동을 디지털 기기에 빼앗겨버린 지극히

수동적인 존재다. 자유 의지를 통해 무엇인가를 바꾸려는 노력 자체가 사라진 노예들의 사회인 것이다.

과학자들의 미래와 소설가들의 미래는 왜 이렇게 상반될까.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상상이라거나 전체를 살피지 못하고 더러워 고감도 센서가 인간 개인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유비쿼터스 세상을 그린다.

존경하는 과학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연구에 관한 '시나리오'를 지어 달라라 부탁을 종종 받는다. 짧게 본다면 그 시

나리오의 연구가 활용되는 한정된 예시다. 가령 입는 컴퓨터가 점점 더 발전하면 미래의 교실은 이렇게 달라질 것이고 미래의 거리는 이렇게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과학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시간 순서대로 담아내는 작업인 것이다.

시아를 조금 더 확장해보자면, 이 시나리오는 개별 기술이 사용되는 개별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단 하루의 짧은 삶을 조망한 시나리오에도 사회 전체의 변화된 모습이 총체적으로 담기기 때문이다. 과학적 발견 혹은 발명은 다층적인 맥락에서 새롭게 자리 잡아야 한다.

과학자들과 소설가들이 제각기 상상하는 미래는 생각보다 다르지 않다. 이소연 씨를 우주로 쏘아올린 것이 과학기술이라면, 그녀가 그곳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에 착안하여 이야기를 꾸미면 소설이 된다. 이때 사건을 정리하고 구체화시키는 시나리오는 과학자에게도 예술가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미래를 향한 시나리오를 과학자와 예술가가 같이 써야 한다. 언제까지 미래를 돌로 쪼갤 수는 없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이고 그 미래는 함께 꿈꾸는 자의 것이다.

<소설가·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시민 힘모아 U대회 광주에 유치하자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U)대회 유치 경쟁의 전초전으로 비유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광주 현지실사 5일 동안 광주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도시 접근성, 대회관련 인프라, 정부 지원, 시민 열기 등을 살펴 U대회 개최로서 적합성을 판단한다. 현지실사 결과에 의해 유치 여부가 판가름나는 만큼 정부, 광주시, U대회 유치위원회, 광주시민 등이 이번 실사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현지실사 점수는 총점의 20%가량이다. 나머지 80%의 대부분이 달려 있는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비해 비중이 낮다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실사단의 보고서는 개최 후보지를 직접 둘러보지 않고 표표를 하는 FISU 집행위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부동표'의 선택을 좌우할 수 있다.

광주시와 유치위원회는 그동안 실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환영행사에서

부터 3차례 이뤄지는 프레젠테이션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경쟁 도시인 러시아 카잔은 대회 유치에 3번째 도전한다는 점에서 동점표를 상당히 확보할 수 있는 데다 다음달 7일 취임하는 메드베데프 신임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원을 업고 막판 뒷심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실사에서 중요한 것은 광주시민의 관심과 참여다. 시민 열의는 실사의 평가요소 중 가장 가중치가 높은 항목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응원이 절실하다.

U대회는 광주가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유형의 경제적 효과도 크지만 광주시는 도시 브랜드의 가치 상승이 가져올 무형의 이익은 수치로 계량하기 만큼 큰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시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실사단에 '감동'과 '확신'을 심어주고 여수 엑스포 성공을 이어가자.

최상철 균형발전위원장 내정 재검토해야

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내정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최 교수의 경력과 성향 등을 들어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에 이어 파문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자치분권전국연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최 교수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수도 건설 사업을 반대한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의 공동대표로 수도이전 위원소송을 제기한 인사"라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연대는 "최 교수를 위원장에 임명한다면 정부가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에 의지가 없음을 공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반대전국연대도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이라면 최 교수의 위원장 내정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최 교수의 경력을 보면 설득력이 충분하다. 최 교수는 대표적인 '수도권 경쟁력 강화론자'다. 지난 2004년 행정수도 건설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효율성을 무시한 나뉘먹기' 식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경기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런 성향의 최 교수가 '지방'을 우선하는 시각에서 균형발전을 선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위원장 내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혁신도시 파동을 거치면서 새 정부의 '지방 죽이기'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당초 폐지 대상이었으나 비수도권의 반발로 간신히 살아났다. 정부는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경쟁력 강화' 원칙부터 선언하기 바란다.

기고

서정성



환자가 직접 상처 난 곳을 꿰매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영화 '식코'는 무척 충격적이다.

치료비가 비싸서 집에서 찢어진 무릎을 바늘로 직접 꿰매고, 병원비가 다 떨어지면 환자는 환자복 입은 채로 길가에 버려진다.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능력있는 의사라 칭송받을 수 있는 이상한 장면들이 우리 눈 앞에 펼쳐진다.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의료의 수준이 세계적이라 자랑하는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돈 없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 하는 민간의료보험제도는 다르다. 정부를 비롯해 일부에서 국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은 민간 자본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을 제기하지만 이 영화에서 보여지듯이 대부분의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에 국민의 건강이나 환자의 치료를 먼저 생각할 것이라는 것은 막대한 동경에 불과하다.

영화 '식코'를 보고 나서

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문제가 영화를 통해 그대로 전해진다.

조금은 지루하면서도 전문적인 이 다큐멘터리가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만큼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조명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미국과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최근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을 거론하면서 스크린 속 '식코'는 점차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1980년대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한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비교적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중심에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보장제도가 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민간의료보험제도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서비스 간격을 좁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입장처럼 민간 자본의 필요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민간의료보험이 필요하다면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아픈 사람이 찾는 병원엔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상점'과는 분명 다른 곳이다.

"돈 없으면 죽으란 말이요?" 영화 포스터의 카피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인하원장·국제한인협의회 사무총장)

기고

전완준



화순군청 직원들에게 '종이 없는 회의'를 주문한지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큰 변화는 보고하는 직원과 간부들 간에 눈을 보면서 말하다보니 서로 신뢰가 생겼다는 점이다. 업무보고나 중요한 회의 때 서류나 수첩을 보지 않고 서로가 눈을 보고 대화함으로써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종이 없는 회의가 처음엔 거북하고, 보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황스럽기도 했으리라. 그러나 일상적이고 가벼운 주제부터 종이 없이 얼굴을 보며 대

고쳐보자는 의도에서였다.

이제 우리 화순군청 공무원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자기 업무에 대해 자신있게 대화하고 보고할 수 있게 됐다. 자부한다. 서로 눈을 보고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을 모두가 터득했기 때문이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말하자고 했던 것이다. 그

눈을 보고 대화하자

화하다보니 이전 께직하던 현안도 서로 눈을 보며 자연스럽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업무 능률도 그만큼 향상되었으리라고 본다.

타성에 젖은 관행을 바꾸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하지만 보다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작은 불편함은 감수해야 할 대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변화나 개혁은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필자가 회의 때 종이를 없애자고 제안했던 이유는 눈을 보고 대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덧붙여서 업무 현안에 관련된 중요한 숫자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간부가 직원들이 써준 서류나 들고 와서 눈을 내리 깔고 보고하는 모습을

래야 초점이 명확해지고 의사소통도 원활해지니까.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라는 노랫말 가사는 참으로 가슴에 와 닿는다.

"군수가 종이 값이나 아끼려고 한다"며 시큰둥했던 공무원들도 이제는 취지를 정확히 알아차리고 솔선수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 공무원 조직의 에너지 결집 능력이 다른 어느 집단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업무 파악 능력이 향상돼 의사결정도 빨라지고 명쾌해졌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한없이 고마운 우리 화순군청 공무원들에게 "존경한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될까? 하지만 그 눈빛만은 숨기지 않으리... (화순군수)

범죄예방 영상물, 되레 모방범죄 부추겨

"혼자 걸어가면 여자의 뒤를 따라가 머리를 때리고 돈을 뺏는 수법이 몇 번 TV에서 본 대로 하니 정말 어렵지 않게 돈을 뺏을 수 있었다."

얼마 전 강도 상해 혐의로 불검한 한 중학생이 경찰에서 한 말이다. 이 중학생은 현금만 빼낸 후 가방을 버리고,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출진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방송 프로그램에서 본 범행 수법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한다.

범죄예방을 명분으로 제작된 지상파 TV와 케이블TV, 인터넷 영상물들이 오히려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를 조장한 사례다.

국내·외적으로 범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항상 긍정과 부정 이 엇갈려 왔다. 범죄 예방과 법인 검거 수단이라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법을 사실보다 더 사실적

으로 자세히 묘사해 모방범죄를 유발한다는 부작용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범죄 특성이 충동적이고 절도·강도·강간 등 무형형 범죄가 많은 것은 TV를 통한 학습효과라는 규정이 나올 정도로,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내용까지 방송을 타는 것도 심각성을 더해준다.

성폭력 사건 장면을 지나치게 묘사하는 방송 뉴스도 청소년 성범죄를 조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사리판단에 서투른 청소년들은 TV 등 영상물을 통해 범죄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잘 잡히지 않는다는 실상까지 함께 배운다. 범죄 수법을 재연하는 각종 영상물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는 이유다.

▲이정오·광주시 광산구 신기동

맞벌이 부부 등 위해 학교 알림장 인터넷에 올렸으면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주부이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이다. 저학년이다 보니 이것 저것 직접 챙겨줄 게 많다. 아직 어린 탓에 아이들 준비물은 전부 부모 몫이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각종 준비물 등을 가정에서 제대로 챙겨 보내라는 뜻에서 알림장이라는 것을 활용한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가 다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맞벌이 주부들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올 경우 시간이 늦어 일일이 챙겨주기 힘들다. 그러나 남편이 가끔 챙겨줘 줄 나가는 하지만 아내 혹은 엄마 중 어느 한쪽이 없는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늦게 귀가하면 준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교 인터넷 사이트에 알림장 역할을 하는 게시판을 학년별, 학급별로 만들어 운용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게시판에 학년, 학급별 준비물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띄워주면 부모가 회사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거나, 퇴근길에 문방구 등에 들러 준비물을 구입해 갈 수 있을 듯하다.

아주 사소한 간단한 배려가 학부모들에게는 커다란 편리를 주고 아이들에게도 준비물을 소홀하게 빠뜨리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아이가 저녁에 준비물을 제대로 준비해가지 못해 선생님께서 꾸중 들었다는 말을 더 이상 안듣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본다.

▲안효령·광주시 북구 장동동

無等鼓

세계에서 인구 1인당 불임치료 시설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아랍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지속적인 출산율 유지를 생존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인구는 오래 전부터 영토, 자원과 함께 국가의 힘을 결정하는 3대 기본요소로 꼽혀왔다. 나라 경영에 필요한 부역을 부과하고 세금을 거두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도 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미혼여성들에게 '독신세'를 부과했다. 독신세는 300년간 지속되면서 로마제국 번영에 일익을 담당했다.

한 때 인구 증가가 국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초까지 인구 억제책을 시행했으며 지금은 정반대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고집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 2년생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다양한 출산 장려책에 쌍춘년, 황금돼지해 등이 출산율 상승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남지역 인구 감소세도 한 풀 꺾였다. 전남 도청이전과 기업 유치 효과로 무안과 광양, 목포 등 일부 지역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전남지역 지자체들은 인구 늘리기에 주력해왔다. 인구가 늘어나면 중앙정부 지원금이 많아지고 새로운 과나 개 신설로 공무원들의 벼슬자리도 생겨난다. 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물론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교육여건 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왔다.

그러나 인구 늘리기 급급한 나머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 이전을 강요하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1만명을 위장 전입시킨 충남 군의 경우가 '인구 뺑뺑이'의 대표적 사례다.

시·군별 인구는 감소해도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늘고 있다. 방만한 관리 조치가 효율적으로 재조정하는 지자체에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

/김재필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1간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